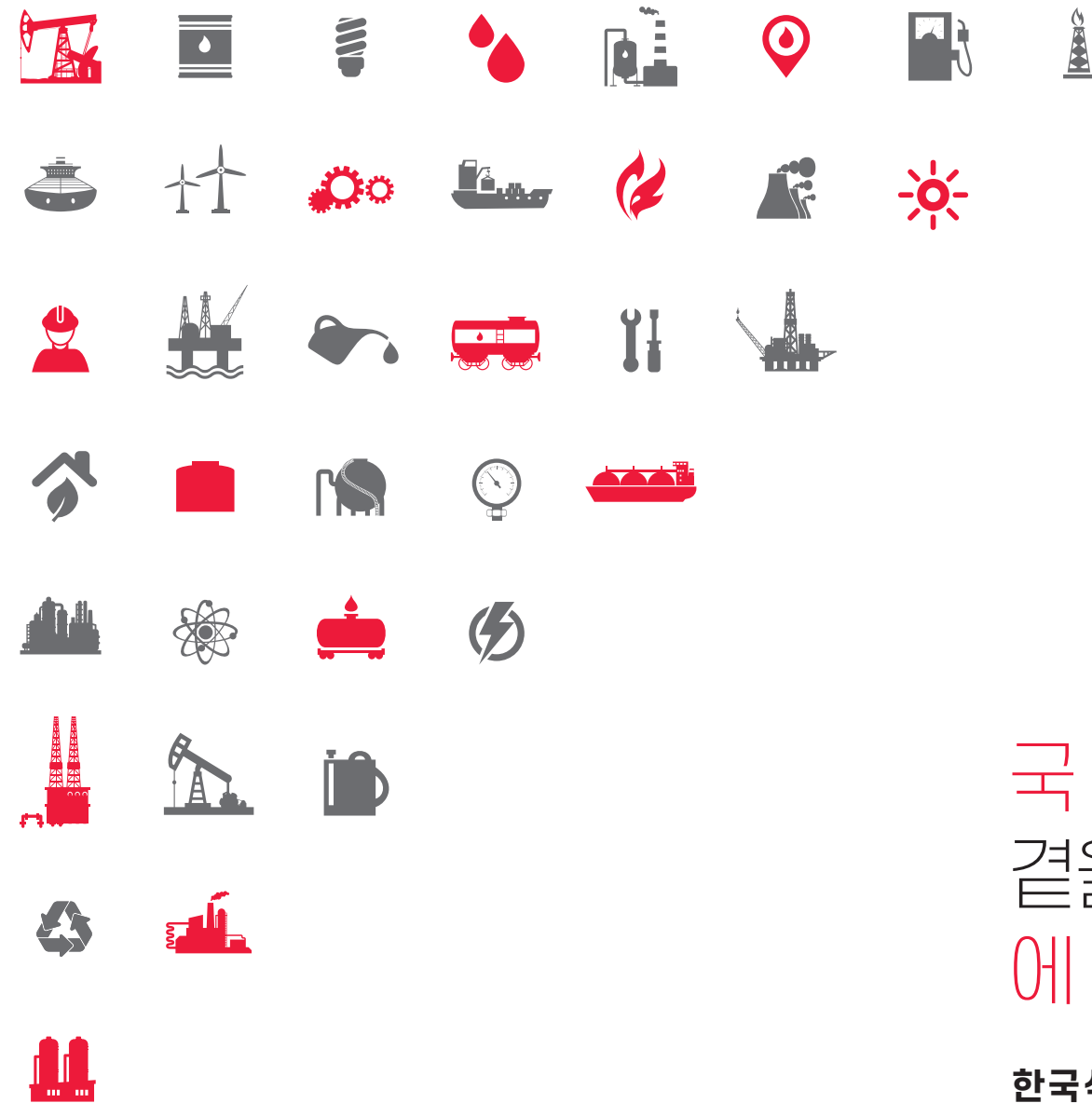




국 민 결을 지키는 에 너 지

한국석유공사 2020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한국석유공사

에너지는 국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특히, 석유는 일상생활과 기업경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앞으로도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국민에게 더 나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설립목적

◊ 석유자원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미션

◊ 석유수급 안정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

슬로건

◊ 오늘의 도전, 내일을 위한 혁신,
모두가 신뢰하는 석유공사

비전

◊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핵심가치

◊ 열정과 도전, 안전과 신뢰,
혁신과 성장

주요사업개요

국
결을 지키는
에 너 지

한국석유공사 2020

경제와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

한국석유공사는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석유탐사·개발·생산(E&P) 사업

전 세계 32개 프로젝트 운영



석유비축 사업

전국 9개 비축기지 운영



알뜰주유소 사업

국내 알뜰주유소 운영



석유정보 서비스

석유정보망 운영

매장량

12.8 억배럴

일일생산량

17.2 만배럴

비축시설 규모

13.6 억배럴

비축유 확보

9,664 만배럴

전국 알뜰주유소

1,207 개 운영

시장 점유율

10.36 %

페트로넷 이용자

76 만명/연

오피넷 이용자

1억 2천명/연

※ 2020년 6월말 기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유전개발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응집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국영석유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 15-1광구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대규모 석유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공사는 해외원유 매장량을 확보해 간접 비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영국 북해의 ‘톨마운트’광구에서 양질의 가스를 추가 발견했으며, 같은 해 UAE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해 할리바 유전에서 원유 상업생산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해외유전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유국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한 도전, 국내대륙붕개발



**한국석유공사는 순수한 우리 자본과 기술력으로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를 발견,
동해-1 가스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산유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6-1광구와 8광구에서 새로운 가스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1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에서 조광권*을 획득하여 새로운 석유부존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 조광권(Concession) :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KNOC GLOBAL PROJECT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0년 6월말 기준, 총 16개국에서 32개(국내 5개 포함)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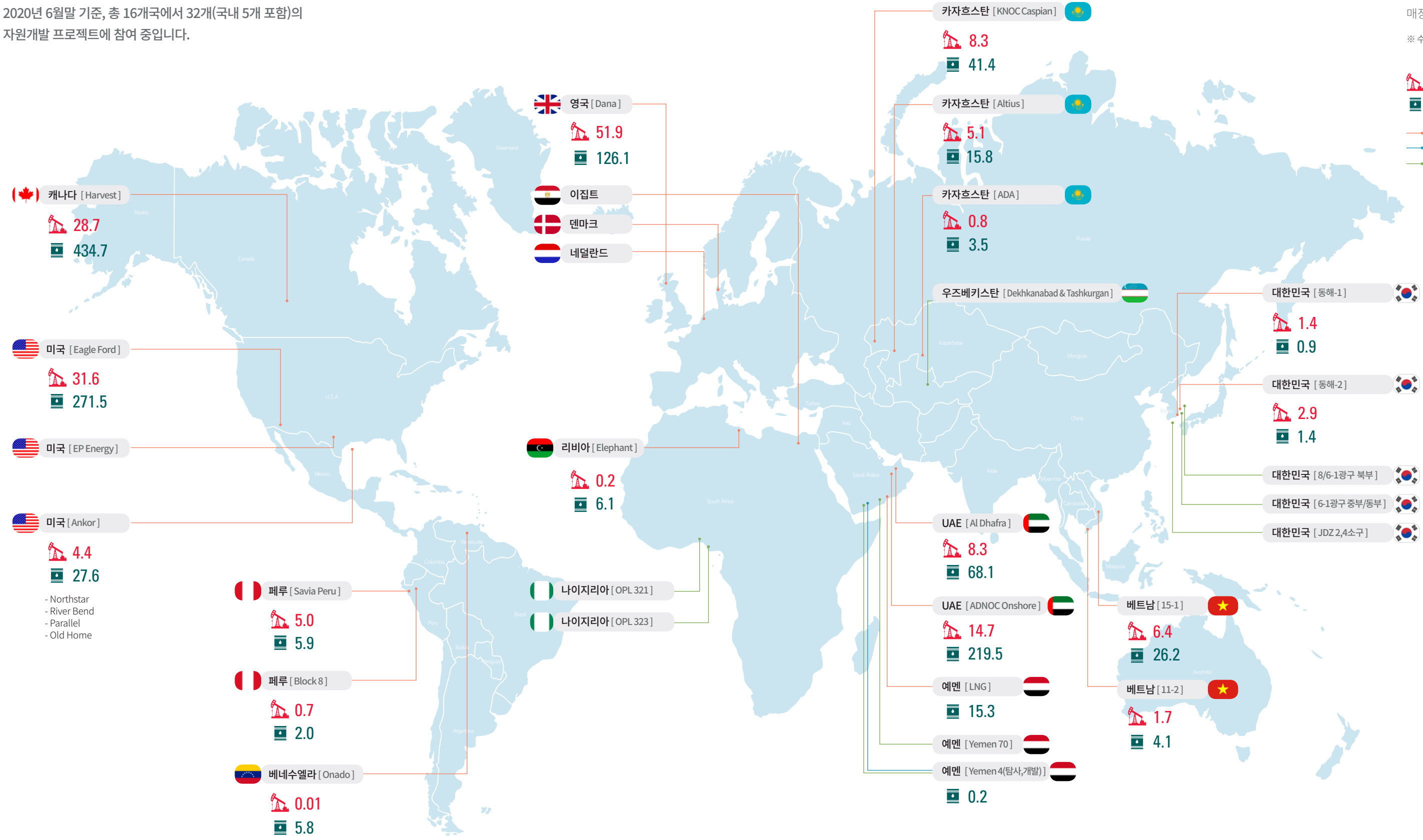
16개국
32개 프로젝트

국
결을 지키는
에 너 지

한국석유공사 2020

일일생산량 : 172.0천배럴
매장량 : 1,275.9백만배럴
※ 수치는 2020년 6월말 공사 지분 몫 기준

일일생산량(천배럴/일)
 매장량(백만배럴)
→ 생산광구 : 23
→ 개발광구 : 1
→ 탐사광구 : 8



석유비축사업



9개 지역
136백만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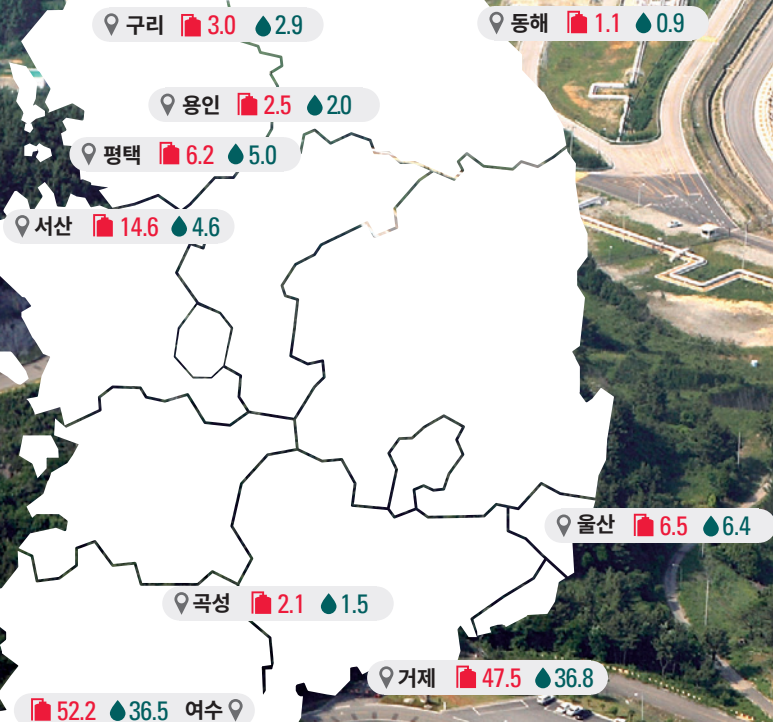
국
결을 지키는
에 너 지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석유수급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거제, 여수 등 국내 9개 지역에서 총 13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2020년 6월말 기준, 96.6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비축물량은 국내 수입량의 95일분**에 해당합니다. 이 비축유는 국내 석유수급 차질 시 정유사에 적기에 지원하여 석유수급 안정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사태 때 비축유를 방출하여 국내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의 비축기지는 HSEQ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민간비축, 공동비축물량을 제외한 순수 정부비축물량
** IEA 기준

국내 비축기지 운영현황



※ 2020년 6월말 기준
※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10.3백만배럴 규모) 진행중

저장용량(백만배럴)
비축물량(백만배럴)



한국석유공사 2020



에너지위기대응 석유비축사업

비축유 및 비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국제석유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활용해 원유, 석유제품, LPG 트레이딩을 실시하고, 그 수익으로 비축유를 추가 구매하여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에 산유국, 외국기업의 석유를 저장, 우선구매권을 확보하여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

여수와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2008년 11월 오일허브코리아(OKYC)를 설립해 818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2019년 7월 북항사업으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설립해 총 273만 배럴 규모의 상업적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1,600만배럴 규모의 남항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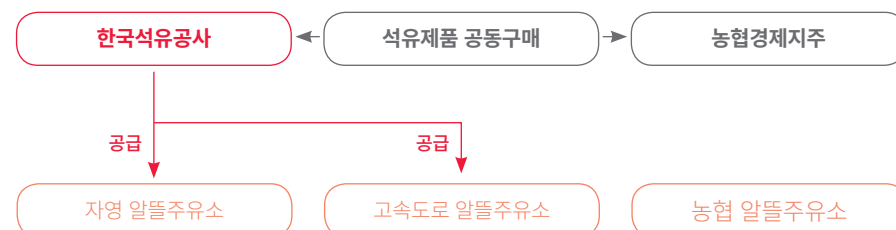


알뜰한 가격, 좋은 품질 알뜰주유소

올해 9년째를 맞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들에게 ‘기름값을 아껴주는 알뜰한 주유소’로 인식되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1,207개로 전체 주유소의 약 1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도 연간 64억 리터로 전체 판매물량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는 전국주유소보다 리터당 약 27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사는 투명한 석유거래 환경 조성 및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알뜰한 가격, 좋은 품질의 석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운영체계



국민의 알권리, 석유정보서비스

국내유일 프리미엄 종합석유정보망
페트로넷 www.petronet.co.kr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유일의 종합석유정보망 페트로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넷을 통해 국내의 유가, 수급동향, 석유개발 현황, 분석정보 등을 국민, 정부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여 정부의 석유정책 수립, 학계의 연구,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www.opinet.co.kr

전국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오피넷은 연간 약 1.2억명, 일평균 33.9만명이 이용하는 웹·모바일 생활정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 기능 강화, 합리적 가격 유도를 위해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스타트업 홍보마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상풍력발전 / CCS / 태양광 발전

한국석유공사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국내기업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사업(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설치해 청정에너지 활용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발전소, 산업 시설로부터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수송한 뒤 지하지층에 주입하여 저장하는 기술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한 공헌활동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한국석유공사는 국민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비축기지의 공공부문 투자확대, 해상풍력사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석유개발과 관련된 민간 업체와의 협업·위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의 가치실현

한국석유공사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반성장의 가치실현과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울산 지역단체들과 연계해 지역기업의 판로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울산지역 중증 장애인을 선발해 KNOC 장애인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안전&환경경영

한국석유공사는 글로벌 석유회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HSEQ(보건, 안전, 환경, 품질) 경영시스템과 국제적으로 인증된 환경경영 시스템(ISO14001:2015)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중심의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PSM 최고등급(P)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철저한 안전 관리 추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PSM*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PSM(공정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안전 관리상태를 P(우수), S(양호), M+(보통), M-(불량) 등급으로 평가

재해·인명사고 “ZERO”

전국 9개 비축기지에서 매월 재난대응 훈련과 안전점검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대규모 재해·인명사고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